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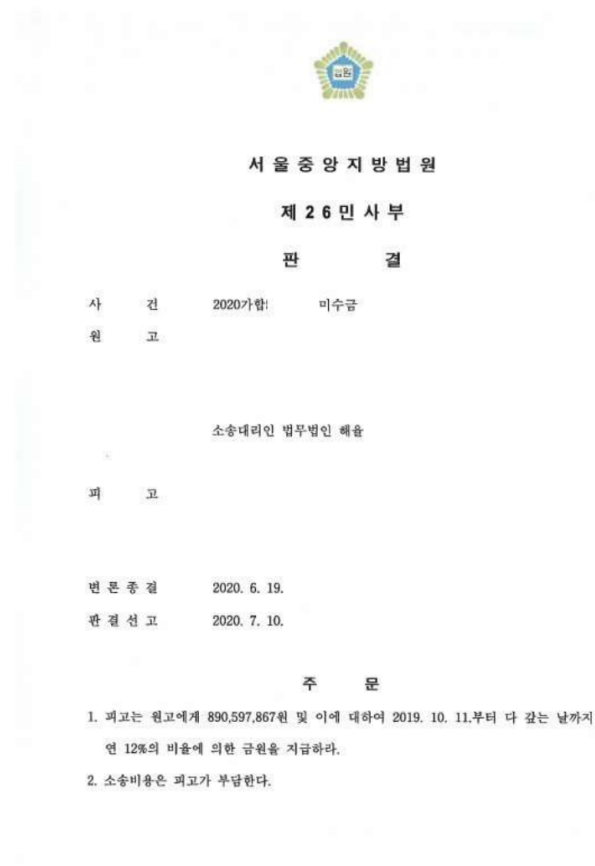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담보가 있어도 남아 있는 대출금, 약 8억 9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다.

대여금 약 8억 9천만 원 인용

지급 인용

미상환 주식담보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인 금융회사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남은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거래라고 해도 차입자의 미상환 채무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한 원금은 약 8억 9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차입자의 지급 의무를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담보가 있는 대출에서는 담보 자체와 채무자의 남은 지급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890,597,867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금융거래의 여러 내역을 최종적인 청구 금액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지급을 구할 상대방과 잔액을 재판에서 특정한 사건입니다.

대응의 핵심

담보가 있는 대출에서는 담보 자체와 채무자의 남은 지급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돈, 떠안을 이유 없는 청구. 제대로 다투십시오.

주식담보대출 뒤 남은 미상환금. 해울은 약 8억 9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식을 담보로 빌려준 돈이 남아 있다면?
- 담보를 확보했는데도 미상환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 거액 대출 잔액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대여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차입자에게 남아 있는 상환 의무를 민사 판결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업의 채권 관리에서는 내부 장부상의 미수금과 실제 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판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미상환 대출금에 관하여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결과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상대방에게 **890,597,8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대출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지급 권리를 판결로 확인한 것입니다. 담보만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대출 거래에서도 남은 채권을 검토하고, 차입자의 지급 의무를 청구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과의 핵심

주식담보대출 뒤 남은 미상환금. 해율은 약 8억 9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주식담보대출 뒤 남은 미상환금. 해율은 약 8억 9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차입자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 회사 미수금을 판결로 확보하고 싶다면?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